

‘어린이 꿈 선사’ 곡성서 동화나라 펼쳐진다

LOCAL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내달 4~6일 섬진강기차마을서 동심 자극 ‘페스티벌’
디즈니 캐릭터 콘서트·뮤지컬·콘텐츠 공연 등 풍성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곡성에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5월 4~6일 3일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기차마을 대탈출! Hi Fun Balloon Festival’이란 주제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

화려한 풍선 장식으로 꾸며진 섬진강기

차마을은 마치 동화 속 나라처럼 변신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3일간 중앙무대 앞에서는 마술쇼, 버블쇼, 풍선아트로 이뤄진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하이라이트는 5월 5일 어린이날 중앙무대에서의 다채로운 공연이다. 오후 4시에 진행되는 ‘디즈니 캐릭터 OST 콘서트’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디즈니 명곡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인어공주의 ‘Under the Sea’부터 겨울왕국의 ‘Let It Go’까지 디즈니 명곡들을 들을 수 있다.

또 안데르센의 명작동화 뮤지컬 ‘별거뼉은 임금님’도 선보인다. 전문 아동극단의 화려한 의상과 세트, 그리고 유쾌한 노래와 춤으로 꾸며진 이 공연은 아이들에게 교훈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명작동화 뮤지컬 공연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중앙무대 옆 잔디광장에서는 3일간 ‘이동식 천문대’, ‘애완 새 체험’, ‘물풍선 미니 오징어 게임’, ‘어린이 목공예’ 등 7개의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펼쳐진다. ‘인기 캐릭터 페레이드’는 곡성 기차마을의 캐릭터인 도깨비 흥이와 청이 외에 아이

들이 좋아하는 여러 캐릭터 분장을 한 배우들이 행진하며 아이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는다. ‘SNS 인증샷’ 이벤트와 ‘보물찾기’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섬진강기차마을을 풍선의 나라로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며 “어린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섬진강기차마을에는 장미공원과 놀이공원인 드림랜드, 증기기관차, 미니기차, 4D 영상관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룡 기자 photo25@gwangnam.co.kr

담양, 시니어 회고 프로젝트 추진

인공지능 활용 청춘복원 사진 등

담양군문화재단은 5월부터 담양군 가사문학관 일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담양애(愛)청춘’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사문학관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청춘 시절을 복원하고, 그 기억을 문화예술로 재해석하고자 기획됐다.

재단은 어르신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중심에 두고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시니어 회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핵심 프로그램인 AI 청춘복원 사진은 어르신의 현재 얼굴을 기반으로 AI분석을 통해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복원해주는 서비스로, 감동적인 개인 맞춤형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복원된 사진은 액자 제작은 물론, 마을 아카이브 구축, 결과물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될 예정이다.

AI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해 어르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도 자신의 삶을 글로 풀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아련한 청춘의 기억을 예술적 감성으로 언어화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담양=조성용 기자 jwnews@gwangnam.co.kr

윤병태 나주시장, 배꽃 냉해 대책 논의

노안면 배 과수원 현장서 농업인 격려

윤병태 나주시장이 배꽃 냉해가 발생한 배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하며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최근 노안면에 위치한 배 과수원을 방문해 꽃눈 냉해 현황을 살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나주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개화 전후 배꽃에서 저온 및 서리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배 품질과 안정적인 수확량 확보를 위한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사팬 등 과수 재해 예방시설의 국고 지원 확대, 농업

재해대책 규정 및 농업재해보험법 개정 등을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과수(배) 일소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예비비 투입과 경영안정자금 및 농자재 구매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 배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윤병태 시장은 “자연재해는 개인의 책임을 넘는 영역이지만 복구와 재기의 책임은 행정에서 함께 짊어져야 한다”며 “농업인 여러분이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개회기 이상 저온으로 배꽃 냉해가 발생한 배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하며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봄맞이 행사 ‘봄불’

고흥분청사기 전국 순회전시·어린이 그림잔치 페스타 등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이 올해 새 봄을 맞이해 다채로운 전시와 문화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29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기도 군포시 도자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28회 광주 왕실도자컨퍼런스에 대한민국 3대 도자기 중 하나인 분청사기 홍보부스를 설치, 고흥분청사기를 전국에 알리는 첫발을 내디뎠다.

같은날 고흥군과 자매도시인 서울 노원구청에서는 ‘제1회 고흥분청사기 공모전’ 수상작(대상·최우수상)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지점 15개소에서 30점의 고흥분청사기를 선보인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에는 광주·전남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파란마음 분청빛깔 어린이 그림 잔치 페스타와 5월 분청문화의 날 행사를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분청문화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분청문화의 날 행사에서는 통기타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매직 버블쇼, 유자·커피나무 심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이색 체험이 준비돼 있다.

또한 다음달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25 국보 순회전 모두의 걸작’라는 주제로 분청사기 국보 순회전이 열린다. 분청사기 상감 연목단당초문병, 분청사기 인화문병 등 진귀한 국가 보물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순천 담락재와 현판’ 국가유산 지정

한옥 건물 1동·현판 51점 대상

순천시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교육과 문화, 선현봉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순천 담락재와 현판’을 전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순천 담락재는 육전조씨 담헌종중의 재사 건물로 1841년 순천 주암면 구산마을의 조진익(1788~1858)과 조진룡(1803~1860) 두 형제가 건립했다.

조진익·조진룡 형제는 향촌에서 형제간 우애로 명성이 높았는데, 후손들에게 형제간의 우애를 가범으로 전승하고자 특별히 서재를 만들고 ‘담락’이라는 편액을 걸었다고 한다.

‘담락’은 부부가 금슬이 좋더라도 형제간에 화합해야 가족이 화목하고 또 길이



줄길 수 있다는 말을 뜻한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담락재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1칸에 전후좌우에 빗간을 뒀다.

처음에는 문중후손과 향리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서당으로 건립됐다가 후손들에 의해 담헌종중의 재실로 사용했다.

건물 내부에는 조진익·조진룡 형제와 조선 후기 성리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노사기

정진의 시판,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과 조선 후기 명필 석촌 윤용구의 편액, 그밖에 기문·주련 등 51점의 현판이 걸려있다.

이 현판은 조선 후기 향촌 재사의 건립과 운영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특히 42종 45점의 시판은 담락재가 조선 후기 교육기능과 문인교류 등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노관규 시장은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순천 담락재와 현판은 형제간의 우애를 실천하고, 향촌의 문화교류의 명소로서 조선 후기 순천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며 “앞으로도 유산이 잘 정비돼 유산의 가치가 후손들에게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함평,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2억 투입·CCTV·비상벨 설치

함평군이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주관 ‘2025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을 통해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경찰은 자치경찰협의회에서 범죄 위험도 1~2등급 관리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지역 내 안전단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사업을 계기로 월야면 빚그림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 인근에 CCTV 및 비상벨 등 방범 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히어로 슈퍼책과 함께할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1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